방글라데시, 테라와다 승가 첫 비구니 수계

첫 비구니 스님 6명 탄생
지난해 10월, 계단 건립
율장 근거 역사 한획 그어
비구니교단 출범 10년만

박영빈 객원기자


방글라데시에 세워진 비구니 계단에서 탄생한 비구니 스님들(단상아랫줄).
사진출처=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방글라데시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전통적으로 비구니를 인정하지 않았던 방글라데시 테라와다 승가에 비구니 승단이 부활한 것이다.

1월 13일, 국제 불교 뉴스 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은 방글라데시 불교계의 혁신과 도전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20일, 방글라데시 남부의 차토그람에 소재한 담다마 비구니 사원에서 6명의 사미니 스님들이 비구니 구족계를 받았다.

이번 수계식을 위해 비구니 승단의 복원을 지지하는 비구 스님들과 앞서 스리랑카에서 구족계를 받아온 비구니 스님들은 율장에 근거하여 사원 안에 새로운 계(界)를 세우고 계단을 건립했다.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 현대 불교사에 최초로 율장에 근거하여 비구니 승단이 머물 계와 비구니 수계를 위한 계단의 탄생이라는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됐다. 이번 수계식에서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니 스님들은 모두 방글라데시 출신이며, 구족계를 온전히 수지하기 위해 몇 년동안 광범위한 경장과 율장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계식에서 전계사를 맡은 대장로 와라삼보디 스님은 "이번 수계는 비구니 승단의 부활을 위해 고행을 견뎌온 선배 비구니, 장로니 스님들의 덕이다. 특히 담다마 사원의 설립자인 고타미 스님은 타국이 아닌 방글라데시에서 비구니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전과 문헌들을 벵골어로 번역하는 등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다"며 방글라데시에 비구니 계맥과 승단이 복원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제 테라와다 비구니 승가 연합의 타탈로카 장로니 스님 역시 "이제 또 한 나라에서 비구니 수계식을 봉행할 수 있게 됐다. 방글라데시는 오랫동안 비구니의 탄생이 어려웠던 나라였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출신의 장로스님이 나서서 비구니계를 주고, 이부승가가 온전히 갖추어진 것은 매우 희유한 일"이라며 비구니 승단의 탄생을 축하했다.

방글라데시의 여성출가자 공동체는 오랫동안 자체적인 비구니 승단의 부활과 운영을 위해 많은 난관을 거쳐 왔다. 지난 2013년 처음 자체적으로 사미니 교단을 출범하였고, 당시 20여명의 여성 출가자가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방글라데시 최고 승가위원회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사의 반납과 교단의 해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미니 스님들은 스님들을 지원하는 재가신자들과 비구스님들의 외호 하에 인고의 시간을 버텼고 2016년 6명의 사미니 스님이 스리랑카에서 구족계를 받아 오면서 최초의 방글라데시 테라와다 비구니 승단이 탄생했다. 국제적으로도 방글라데시 비구니 승단에 대한 지원도 이어졌다.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이러한 강력한 지역 및 국제적 지원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방글라데시 테라와다 불교의 비구니 승가는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완전한 구족계의 수계는 팔리어 불전에서 말하는 온전한 비구니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오랜 여정에서의 긍정적인 첫 단계다. 드디어 방글라데시 테라와다 교단에 온전한 사부대중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수계식이 성사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고타비 장로니 스님은 "앞으로 탄생하는 비구니 스님들을 비구니 교육시설이 갖춰진 스리랑카로 유학을 보낼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다른 비구니 스님들과 연대할 것"이라며 장래계획을 전했다.

일본 고찰, VR로 극락정토 구현

센쥬지, 종조 탄생 850주년 맞아
불경 내용 360도 화면으로 제작


센쥬지에서 시험공개중인 VR 극락정토.
사진출처=산케이 뉴스

불경 속에 묘사되는 극락정토의 모습이 360도 VR로 구현됐다. 일본 미에(三重)현에 소재한 정토진종의 고찰 센쥬지(專修寺)가 최근 VR을 이용한 다양한 영상으로 불경의 내용과 사찰의 풍경을 담아내 화제다. 지난 1월 11일, 일본의 '산케이 뉴스', '야후재팬 뉴스' 등은 센쥬지의 VR에 대해 보도했다.

15세기에 세워진 센쥬지는 미타신앙과 염불수행을 종지로 삼는 일본 정토진종의 본산 사찰중 한 곳이다. 센쥬지는 최근 "5월, 종조인 신란(親鸞)대사의 탄생 850주년을 맞이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VR을 이용하여 360도 화면을 통해 아미타불 극락세계를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시설은 센쥬지가 소장한 국보와 성보문화재들을 보존 전시하기 위한 보물관의 재건축과 함께 부속시설로 마련된 것으로 건물내부의 6면에 세로 4m, 가로 6m 대형 화면을 설치하여 '육각당(六角堂)' 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센쥬지 측은 "VR을 통해 불경에 등장하는 극락세계의 모습과, 연꽃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왕생의 모습을 재현하여 극락의 연못에 있는 듯한 풍경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영상의 이름은 'OJODO' 로 일본어로 정토를 뜻한다. 현재 시범영상이 완성되어 오는 2월 중순까지 대중에게 공개된다. 현재 공개중인 영상에는 극락정토의 전체 모습 중 일부만이 공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경내의 건물이나 회화, 조각 군을 드론과 입체영상으로 촬영하여 역시 직접 체험하듯이 볼 수 있는 VR영상 'SENJUJI 360' 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오는 5월 보물관의 재개관과 함께 영상의 최종 버전과 육각당 시설이 공식으로 공개되면, 한 번에 최대 40명까지 육각당 내부에 들어가 스님의 해설을 들으면서 극락정토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센쥬지 측은 "대중들에게 친숙한 개념의 극락세계에 대해서 VR로 보여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사찰에 발걸음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영상을 공개하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영빈 객원기자

독일 베를린 한복판에 인도 불교 유적이?

훔볼트 박물관, 세계문화유산 '산치' 복제품 전시

독일 · 인도 조각가들 합작품
생명체 대한 연민 · 자비 구현


박정현 객원기자독일 베를린에 등장한 '산치' 의 문. 사진출처=DW

독일 베를린에 새로운 광경이 포착됐다. 인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산치' (Sanchi)의 문이 등장한 것. 인도에 있어야 할 산치의 문이 베를린 한복판에 나타난 배경은 무엇일까.

1월 16일(현지시간) DW 등 보도에 따르면, 베를린에 위치한 훔볼트 포룸 박물관(Berlin's Humboldt Forum museum)은 관내 야외공간에 '산치' 의 일부를 그대로 재현한 복제품을 전시했다.

DW는 "훔볼트 포룸 박물관 단지에서 고대 인도의 웅장함이 목격됐다"며 "산치의 복제품이 세밀하게 제작돼 과거 베를린궁전이었던 아시아미술관 인근 야외공간에 전시됐다"고 설명했다.

산치는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에 있는 불교 유적으로 기원전 3세기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대왕이 조성했다. 고대 인도 최대의 스투파 유적으로 꼽힌다.

약 160만 유로를 들여 건축된 해당 전시품은 독일과 인도 조각가들의 합작품이다. 바이에른 인근 도시에서 채석된 붉은 사암을 사용했고 무게 약 150톤, 높이 10m, 너비 6m에 달한다.

세 개의 대들보와 두 개의 기둥에 부처님 일생을 조각화했다.

베를린 주재 인도 대사 해리쉬 파르바탄네니(Harish Parvathaneni)는 "베를린 중심부에 산치의 일부를 재현한 복제품을 설치한 훔볼트 포럼 박물관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이 전시품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부처님의 연민과 사랑의 메시지를 그대로 구현해 인정받을만하다"고 기뻐했다.

또 박물관 관계자는 "인도와 독일 간 긴밀한 관계의 상징"이라며 "양국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유대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해당 박물관은 추후 산치의 문 복제품 옆으로 또 다른 산치 유적의 일부인 청동 모형 복제품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프레데릭 대제의 왕궁을 재건해 2020년 개관한 훔볼트 포룸 박물관은 21세기 독일의 최장기 문화 프로젝트이자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문화 사업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베를린 국립민속박물관과 동아시아박물관이 훔볼트 포룸으로 이전, 다양한 동아시아권 문화재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개관 초기 1897년 영국군 병사가 나이지리아 에도 주의 베닌 시티에서 훔쳐 온 청동 조각상 등을 포함한 약탈 문화재 2만여 점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박정현 객원기자

中 "스리랑카, 달라이라마 방문 막아라"

스리랑카 주재 중국 대사, 시암 니까야 종단 찾아 경고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제14대 달라이라마.
사진출처=유라시아리뷰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제14대 달라이 라마의 스리랑카 방문설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1월 17일 유라시아리뷰 등 외신은 스리랑카 주재 중국 대사관인 후웨이(Hu Wei)가 최근 시암 니까야(Siam Nikaya) 종단의 말와투 지부 마하나야케 테로(Mahanayake Thero)를 찾아 달라이 라마의 스리랑카 방문에 강력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스리랑카의 방송 매체에 출연해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허용할 경우 중국과 스리랑카의 외교관계를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한 데 이어 또 다시 스리랑카 정부를 공개 압박한 것이다.

후웨이는 이 자리에서 "달라이 라마는 그와 추종자들의 주장처럼 단순한 수도승이 아니"라며 "1951년 중국이 점령하기 전까지 티베트에서 군림하던 봉건적이고 신권적인 체제의 수장이자 분리주의자"라고 열변했다. 또 "달라이 라마는 반중 분리주의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티베트를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정치적 망명자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후웨이는 아울러 "중국과 스리랑카는 가장 가까운 친구"라며 "중국과 스리랑카의 유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스리랑카와 스리랑카 불교계는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막아야 한다"고 재차 경고했다.

이에 말와투 마하나카야마 테로는 "스리랑카 정부와 불교계는 스리랑카 경제 부양을 위한 중국의 기여를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현 객원기자

꿈이 이루어지는 도량 함안 마애사

천년의 물 흐름 속 영험한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청룡대불

지성으로 기도드리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는 기도도량입니다

미리 부처님 친견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어 발원하는 모든 일들
원만성취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0월 완공 예정
2024년 1월 1일 갑진년(청룡의 해) 새해 점안법회 예정
055-585-5114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마 애 사


함안 마애사 청룡대불